

총선 6개월 앞... 민주 경선 치열, 정계개편 등 변수

광주 광산갑 민주 권리당원 모집 불발법 확인... 경선에 영향 선거법개정안 통과 따라 광주·전남 의석수 조정 초미의 관심

내년 4월15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관련기사 4면>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전국이 '조국 정국'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회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야권발 정계개편 등이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과정에서 상당수 불발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광주 광산 갑 지역구에 대한 광주시장의 전수조사 결과도 당내 경선과정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전남, 민주당 경선 치열...권리당원 전수조사 변수-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 각 지역구별로 제21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 6개월을 앞두고 검찰 개혁 등을 주장하는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얼굴과 이름을 알리며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의 출마 예정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벌써부터 치열한 경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광주시당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 불·탈법이 극성이었다는 광주 광산갑 지역구에 대한 전수 조사가 나서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당내 경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경선에서 50%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표심이 사실상 경선 결과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선거구별로 일부 출마 예정자들의 거주 문제에 따른 변수도 등장하고 있다.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정중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검찰의 광주시 민간공원 수사 여파 등으로 인해 사실상 내년 총선 불출마로 선화했고, 이정의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최근 남구로 이사해 출마 가능성이 높고 있다. 여기에 이 상임감사와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의 인재영입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이광범 변호사 등의 거주도 주목된다.

◇선거법 개정안 등 주목=내년 총선의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국회 선거법 개정안 통과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국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총선 '게임의 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에서는 2개의 선거구가, 전남에서는 3개의 선거구가 통폐합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해당 선거구 출마 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로 남겨진 선거제 개혁은 총선 구도를 좌우할 대형 변수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 즉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협상 불발 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 4당의 공조가 공고하게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은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치러질 수 있다.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대표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다.

◇호남에서는 정계개편도 큰 변수-선거제 개혁은 내년 총선의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꿀 뿐 아니라, 정계개편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군소정당들은 선거제 개혁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계개편 없이 현재의 다당제 구도 속에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선거제 개혁이 좌초하면 바른미래당 내홍,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발(發) 정계개편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18개(광주 8개·전남 10개) 선거구 중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4명,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안신당과 무소속 의원 등이 11명인 만큼 향후 야권발 정계개편이 이뤄질 경우 광주·전남 지역 총선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총선은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총선 결과 의외 지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갖는 만큼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여야의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금남로·서울 서초동 "검찰 개혁" 촛불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지난 12일 광주 금남로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 열렸다. 서울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와 조 장관을 규탄하는 맞불 시위도 동시에 열렸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광주집회는 오후 6시 금남로 거리에서 '검찰개혁·적폐 청산을 위한 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주시민행동' 주최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8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주에서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집회에서 시민들은 '검찰개혁' '언론적폐 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등을 구호로 외치며 촛불과 피켓을 들었다.

집회는 문화행사 등이 1시간 50분가량 진행됐고, 참가자들은 집회후 광주 동구 자산동 광주 지방·고등 검찰청 앞에서 이동한 뒤 구호를 외치고 해산했다. 지난 5일 1차 광주 촛불집회를 광주 검찰청 앞에서 진행한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많은 시민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 집회 장소를 광주 검찰청 앞에서 금남로로 바꿨다.

또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수호를 주장하며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했다. 집회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서초역 역사는 집회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7호선 내방역 인근에서 내려 서리풀터널을 통해 집회 현장으로 오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조국 수호', '정치검찰 OUT', '최후통첩'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초역사거리에서 열린 무대에서 나오는 발언에 호응하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을 향한 수사가 검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적폐'라고 비판하고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00번째 노벨평화상 '20년 분쟁 종식' 에티오피아 총리 아비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머드 알리(43·사진) 총리가 100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다.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아비 총리를 201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 배경으로 "평화와 국제 협력을 위한 노력, 특히 이웃 에리트레아와의 국경분쟁 해소를 위해 결단력 있는 이니셔티브를 취한 것과 관련해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리트레아는 1952년 에티오피아에 합병됐다가 30년에 걸친 투쟁 끝에 1993년 독립했다. 그러나 1998~2000년 국경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져 양측에서 7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2018년 취임한 아비 총리는 에리트레아와의 화해를 추진했고, 전쟁 후 20년간 분쟁상태였던 양국은 작년 7월 마침내 중전을 선언함으로써 '친구 관계'가 됐다.

에티오피아 총리실은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에 성명을 내고 "국가적 자랑"이라면서 "모든 에티오피아인의 승리이자 에티오피아를 번성하는 국가로 만들려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하려는 요구"라고 평가했다. 노벨위원회는 아비 총리와 함께 피로 얼룩졌던 양국 관계에 평화를 정착시킨 에리트레아의 이사야아스 아페웨르키 대통령의 공로도 높이 평가했다.

/연합뉴스

조대부고 총동창회
2019 조대부고인 어울림 한마당
 막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랴!
 ■ 일시: 2019. 10. 20(일) 09:30
 ■ 장소: 모교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 광 태

2019 한국경제신문 한국소비자만족지수 태양광 발전사업 부문 1위 기업

최고의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십시오!

- ★ 개발행위허가 / 발전사업허가 완료
- ★ 한국전력 선로 확보 완료
- ★ 2019년 10월 현재 시공 중
- ★ 금융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상업운전 개시 임박!

- ★ 우수한 일조량(전남 신안군 일대)
- ★ 자연풍에 의한 여름철 온도 제어
- ★ 빨 잘 안 쌓이는 겨울 환경
- ★ 주변가림이 적은 지형조건

- ◆ 적용 시스템
- ★ 모듈 캐나디안솔라 385wp 단결정
- ★ 인버터 카고 100kW급
- ★ 알루미늄 구조물
-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 상업운전 지연 시, 지연 이자 지급

파트너사 **광주은행**

대출 최대 80% 가능
 ※ 차주 소득 금액 및 담보 상황에 따라 대출금액 조정

SUN友

(주)선우엔지니어링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57
 www.solar-sunwoo.com

방문 및 현장답사 환영

T. 031-831-9795
 H. 010-4596-3982